

무리한 수사 남발…억울한 피해자 양산

광주·전남 경찰 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추세

기소의견 송치 중 매년 2000여명 무혐의도

광주·전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 중 해마다 2000여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경찰의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개인의 생업은 물론 인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용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마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해 631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224건이 기각됐다.

광주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35.5%로, 전국 16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부산·충남(34.1%), 경기(31.8%), 전북(30.7%), 서울(30.2%) 등의 순이었다.

광주경찰은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모두 369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24건(33.6%)이 기각됐다. 전남경찰의 기각률은 지난해 29.3%, 올해 상반기

국감 자료 보니

광주경찰 영장 기각률
35.5%로 전국 최고

광주·전남 불기소 처분
3년간 5941명 달해

28.3%로 파악됐다.

특히 광주·전남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매년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

2010년 18.4%, 2011년과 2012년 26.6%, 2013년 30.8%로 조사되는 등 지난 5년 사이 17.1%나 증가했고, 전남경찰은 지난 2010년 17.8%에서 2013년 32.3%까지 증가했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강북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광주·전남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인원이 59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2063명, 2013년 1934명, 2014년 1944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혐의 없음’은 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순천 인질극 긴박했던 2시간 35분…9세 초등학생 무사

“아이부터 풀어달라” 설득
범인 체포…애정문제 발단

순천에서 5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초등학생 아들을 인질로 삼아 2시간30여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수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여성이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순천경찰은 1일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 강요)로 위모(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에서 A(여·44)씨 아들 B(9)군을 인질로 붙잡고 2시간35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집에는 A씨 친정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

위씨는 “A와 할말이 있다. 오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해 질 수도 있으니 (A씨를)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위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를 통해 담배와 음료 등을 넣어주면서 쪽지로 “아이를 풀어달라”고 설득했고, B군이 풀려나자 곧장 위씨를 제압했다.

위씨는 앞서 이날 새벽 6시5분께 순천시 조례동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리띠로 A씨의 두 손을 묶어 놓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위씨는 흡천 차량을 타고 A씨의 아파트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수배해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위씨가 A씨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질극에 앞서 위씨는 ‘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경찰과 30~40분간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 경찰이 들어닥치자 B군을 인질로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위씨는 경찰조사에

서 “(피해 여성과) 1년 6개월 동안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3000여만원 가량을 빌려주기도 했는데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나를 피하기 시작해 인질극을 벌였다”고 밝혔다.



알고 지내던 여성의 초등생 아들을 2시간 넘게 감금하고 인질극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대원이 인질극이 발생한 순천시 조례동 한 아파트 주변에 설치한 에어매트.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한편 이날 현장에는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 14명이 출동했으며, 119는 아파트 주변에 사다리차와 에어매트 등을 배치해 인명 피해없이 상황을 종료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세월호 진상조사·인양 최선 다하겠다”

특별조사위 팽목항 방문…실종자 가족 면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가족들이 1일 잇따라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군 팽목항과 사고해역을 찾았다.

이런 특조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직원들은 이날 오후 팽목항을 방문해 임시 분향소에서 한화·분향하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앞으로 특조위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무엇보다 실종자 수습을 위한 인양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고, 이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인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 등 특조위 직원들은 이후 사고해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경비정에 탑승해 중국 인양업체가 인양을 위해 수중조사를 진행하는 사고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원활하고 안전한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해수부가 인양 현장 바지선 승선 요청을 거부, 상하이 셀 바지 바지선에 오르지는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특조위 사고현장 설치

조사팀이 팽목항을 찾아 분향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을 면담했다. 실지조사팀은 2일 오전에는 전문가와 함께 세월호 침몰시간대에 맞춰 사고 해역을 찾아 그동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4·16가족협의회 차원으로 단원과 회생 및 생존학생 아버지들이 사고해역에서 1.5km 떨어진 진도 동거차도에서 인양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여객선에 탑승했다. 이들은 중국 인양업체가 잠정적으로 인양준비작업 기간으로 설정한 오는 11월까지 동거차도에 머물며 망원경 등을 통해 인양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1차 선발조로 동거차도에 도착한 가족들은 사고해역이 내려다보이는 동거차도 절벽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중국어와 한국어로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이 기다립니다!’라고 적힌 가로 10m 세로 10m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남 학생간 성폭력 3년간 2배 급증

전남지역의 학생 간 성폭력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 이 기간 1.3배가 늘었다.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2012~2014년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2012년 39건, 2013년 31건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다. 전남은 2012년 16건에서 2013년 28건, 2014년 37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학생 성폭력 사건이 2012년 642건에서 지난해 14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0건에서 79건으로 7.9배, 울산은 12건에서 44건으로 3.7배, 경남은 32건에서 104건으로 3.3배, 제주는 4건에서 13건으로 3.3배 늘어나

는 등의 순으로 증가비율이 높았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연령 또한 점점 어리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이 지난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심의된 사건 중 초등학교는 533건으로 18.1%, 중학교는 1672건으로 56.7%, 고등학교는 678건 23%로 초·중 학생 사건비중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도 학교마다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떤 학교에서는 퇴학처분을 하는 반면 어떤 학교는 출석정지, 교육이수 처분에 그치는 등 징계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 문제”라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왜 민원 안 들어줘?”…여성공무원 등 상대 상습 행패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거나 기분에 거슬리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여성 공무원, 농협 직원, 마을노인 등을 상대로 행패를 일삼는 50대가 철창 신세.

○…1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김모(55)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에 장성군장성읍사무소에서 여성 공무원 A(28)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최

근 5년간 지역 공무원 3명, 농협 등 금융기관 직원 4명, 마을 노인 3명 등 10여명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읍사무소에 찾아가 말쑥을 부린 김씨는, A씨의 동료들이 제기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던 이어 보물 터지듯 추가 범행 사실을 신고한 주민들이 늘면서 결국 쇠고랑 신세.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야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관광특구!
투자 가치 확신!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과거 박물관, 펜션, 식당, 찻집으로 운영함
- 차후 형질변경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감정가 - 28억 / 시세 30억 정도
-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

경매 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임장비 등등
1200만원

▶ 단독/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1억원 이상
수익률-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